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연준 이사 Waller, "연준 빠르면 7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어"

### [미국 금융]

- Bloomberg: 연준 이사의 금리 인하 발언으로 국채 손실 줄어

### [중동 위기]

- Bloomberg: 트럼프, 현재로서는 이란 공격 당분간 미뤄

### [무역 전쟁]

- WSJ: 미국, 삼성전자 등에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통보
- Bloomberg: 미 관세로 중국산 소포 수출 타격 입어
- Bloomberg: 5월 중국 희토류 자석의 대미 수출 감소
- WSJ: 캐나다, 트럼프 철강 관세 대응 차원에서 미국산 철강 수입 제한
- Bloomberg: 한국의 기록적인 대미 흑자로 관세 협의 쉽지 않아

### [오일]

- Bloomberg: 시티그룹,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유가 90달러로 급등할 수 있어"

### [자동차]

- Bloomberg: '관세 여파로 차량당 2,000불 인상 전망'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기록적인 소매 신용카드 이자로 소비자 파산 가능성
- NYT: 비웃음의 대상이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주목받아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Waller Says Fed Could Cut Interest Rates as Soon as July 연준 이사 Waller, "연준 빠르면 7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어"

- 연준 이사 Christopher Waller는 연준이 빠르면 8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고 말해 관세로 인한 인플레 여파는 단기적일 수 있다는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 그는 CNBC와의 오늘 금요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7월 연준 정례 회의는 7월 29일부터 양일간이다.
- 그는 "우리는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고 그런 후에 인플레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중동 위기 같은 변수로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할 수 있지만 지난 6개월간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고 현재까지 경제 데이터는 양호하다고 덧붙었다.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Treasuries Trim Losses as Waller Fuels Fed Hopes: Markets Wrap

##### 연준 이사의 금리 인하 발언으로 국채 손실 줄어

- 연준 이사가 연준이 빠르면 7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발언에 힘입어 오늘 월요일 미 국채가 그동안은 하락을 줄이는 상황이다.
- 단기 국채물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2년물 국채 금리는 3.94%로 거래되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19% 하락한 4.41%에서 거래되고 있다.
- 주식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트레이더들이 중동 사태를 주목하는 가운데 이들은 6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를 준비하고 있다.
- S&P 500은 분기마다 발생하는 트리플 위치(Triple Witching) 즉, 주식과 지수 옵션, 선물과 맞물린 파생 상품 계약으로 인해 불안정이 커지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중동 위기]

#### Bloomberg: Trump Hints He'll Hold Off Iran Strike, For Now

##### 트럼프, 현재로서는 이란 공격 당분간 미뤄

-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 공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외교적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2주 내에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 대통령은 전쟁 종식의 유일한 방법은 적의 공격이 조건 없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핵 농축 제한 회의를 할 용의가 있다는 보도에 오일가는 하락했다. 그러나 이란은 핵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제로 농축'을 요구하는 트럼프와 갈등하는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 [무역 전쟁]

#### WSJ: U.S. Prepares Action Targeting Allies' Chip Plants in China

##### 미국, 삼성전자 등에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통보

- 미국 고위 관리는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미국 기술을 반입하도록 하는 유예 조치를 취소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연방 상무부의 수출 통제 책임자인 Jeffrey Kessler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에 그동안 매번 수출 허가 라이센스 없이 그들의 중국 공장에 미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한 유예 조치를 최소화하기 원한다고 이번 주에 말했다.

- 이로 인해 미국과 한국, 대만과의 관계가 긴장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가뜩이나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제한 조치로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WSJ 기사

## Bloomberg: US Tariff Spike Hits China's Small Parcels, Squeezing Exporters

### 미 관세로 중국산 소포 수출 타격 입어

- 미국의 중국산 스몰 패키지에 대한 관세 타격으로 5월 40% 감소했다. 즉,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스몰 패키지 규모는 10억 달러 정도로 감소했다.
- 구체적으로 Shein Group과 다른 중국 소기업들은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소포에 대한 하점으로 무관세로 수출해 왔는데 현재는 높은 비용과 물류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동안 중국산 8백불 소포의 대미 수출과 무관세였으나 현재는 54%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China's Rare Earth Magnet Exports Slump in May, Especially to US

### 5월 중국 희토류 자석의 대미 수출 감소

- 중국의 5월 희토류 자석 수출이 줄었는데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은 4월에 반으로 줄어든 데다 5월 들어서도 또 반으로 줄어들어 1천2백38톤을 기록했다. 수출 가격은 6천만 달러.
- 5월 미국의 희토류 자석 수입은 46톤에 불과했는데 이는 3월의 수입분의 10분의 1보다 작은 물량이다.
- 반면에 베트남과 독일의 공급량은 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loomberg 기사

## WSJ: Canada Imposes Import Curbs on Steel to Address Fallout From Trump Tariffs

### 캐나다, 트럼프 철강 관세 대응 차원에서 미국산 철강 수입 제한

-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철강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철강 수입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전에 따라서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시행될 경우 7월 21일부터로 예정하고 있다.
- 캐나다 정부는 철강을 수입할 경우 정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자국의 공급업체 또는 캐나다와 무관세 협정을 가진 국가의 업체로 제한할 예정이다.

WSJ 기사

## Bloomberg: South Korea's Record Surplus With US Adds Strain to Tariff Talks

### 한국의 기록적인 대미 흑자로 관세 협의 쉽지 않아

- 한국의 미국에 대한 경상 수지 흑자가 지난 2024년에 1천1백8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양국의 관세 협상에서 이명박 정부에 도전이 되고 있다.
- 미국의 대한국 무역 흑자가 커지고 있는데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로 작년에 수출 규모는 GDP의 40%를 넘는 상황이다.
- 미국의 한국의 두 번째로 큰 수출국가인데 현재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수출과 GDP, 그리고 한중 무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loomberg 기사

### [오일]

## Bloomberg: Oil Could Spike to \$90 If Strait of Hormuz Shut, Citigroup Says

### 시티그룹,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유가 90달러로 급등할 수 있어”

- 시티그룹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브렌트 원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까지 급등하고, 운송은 장기간 중단될 것”이라 발표했다.
- 분석가들 또한 가격은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 있으나, 해협 재개방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기에 수개월에 걸친 장기 봉쇄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최근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중국 정유업체들 또한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미미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중이다.
- 현재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자동차]

## Bloomberg: Auto Tariffs Seen Hiking Car Prices by Nearly \$2,000 Per Vehicle

### ‘관세 여파로 차량당 2,000불 인상 전망’

- 컨설팅 기업 AlixPartners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인상으로 인해 차량 한 대당 약 2,0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
- 관세 여파로 향후 3년간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약 100만 대 감소하지만, 2030년에는 관세 영향이 완화됨에 따라 미국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대비 100만 대 증가한 1,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 AlixPartners는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가 완화되어 향후 자동차는 7.5%, 부품은 5%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공제 폐지 조치는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전망치를 절반으로 낮출 것이라며 2030년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7%에 불과할 것이라 전망했다.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How retail credit cards could bankrupt consumers with record high interest rates**

#### **기록적인 소매 신용카드 이자로 소비자 파산 가능성**

- 최근 파산 신청자 중 소매 신용카드를 보유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금리가 주요 원인이 된다.
-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대형 소매업체의 매장 신용카드는 금리가 더 높은데, 이는 해당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의 신용 점수가 낮고, 은행에서 위험도가 더 높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 이 금리는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이 연체료 상한선을 정할 것이라 예상하고 인상한 금리이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지난 9월 평균 30.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금리를 비롯해 연체료 부담으로 인해 2021년 이래로 소매 신용카드 부채가 있는 사람 중 파산 신청 비율이 신규 신청 비율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CNBC 기사

#### **NYT: Hybrid Cars, Once Derided and Dismissed, Have Become Popular**

#### **비웃음의 대상이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주목받아**

- 자동차 구매자들이 전기차 모델의 높은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점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고 있다.
-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미국 경차 판매량의 약 14%를 차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 토요타와 렉서스는 올해 첫 5개월 동안 판매한 승용차와 트럭의 절반이 하이브리드 차량이었고,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 포드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31% 증가했고, 혼다는 올해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가 새로운 전기차 출시를 늦추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NYT 기사

### [보고서]

#### **美연준, 신중한 금리정책 지속...연준 내부선 '전망 양분'**

#### **'연내 2회 인하' 유지하며 관망 기조이나 '연내 동결' 의견 4→7명으로**

## 연준 위원들 관세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중동 정세 악화도 변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 4.25~4.50%로 동결하고, 경제전망에서 연내 2차례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한 것은 '좀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겠다'(wait and see)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물가지표가 추가 금리인하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이 아직 견조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분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